

보건분야 종사자의 봉사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뜻한 바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자부심과 긍지로서 매사를 자신있게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우기 일하는 보람 보다는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 세대의 정신적 결핍은 수동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

의욕적이며 열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화승 공동의료보험조합 金永九사무국장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르게 사는 모범 직장인으로 보인다.

육척거구, 날카로운 눈매는 능히 다른사람을 압도하며,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그의 강인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깊숙히 패인 주름이 20년간 국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훈장(?)이라며 호탕하게 웃는 그에게서 기자는 깊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한일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우려 노력했으나 지금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것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성실성을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 문화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보건분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국민보건의식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건강은 체계적인 정부의 보건정책사업과 각 의료전담분야의 조직적인 검사, 치료 등 국민보호관리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협에서는 정부보건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서 국민보건의식

복지사회 건설을!!!

화승공동의료보험조합 사무국장 金永九씨

개선을 위하여 건강검사 뿐만아니라 보건교육을 통하여 선진국형 국민보건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국장은 건협이 해야할 앞으로의 국민건강생활의 홍보사업방향을 가적해 주기도 한다.

『보릿고개시절을 지낸 기성세대들에게는 아직도 건강이란 단어를 낭비로 생각되고 있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려운 현실속에서 예방의학사업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기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보건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봉사하는 자세와 단결된 힘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내조합원 뿐만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피부양자까지 보건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며 김국장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기도—.

평소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이름없는 산사를 찾아 산행의 즐거움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취미이자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며 욕심없는 생활에 만족해 한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협부산지부직원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국민보건의식개선을 위한 보건계몽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은 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어느지역, 어느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건협은 모든 사람에게 공신력있고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기억되리라 확신한다. 仁, 義, 禮, 知, 信을 가훈으로, 여사와 4남 1녀를 둔 다복한 가장인 金永九씨는, 어릴적 꿈은 한의사였다고.

긴 복도를 지나면서 기자는 진정 행복한 인생,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영구국장과 같이 주어진 환경속에서 만족하여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믿어 본다.